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 연구

—부정대격구문, 부정주격구문 및 부분(생)격구문과의 비교 고찰

이 인 영*

1. 들어가는 말

러시아어 동사를 연구하거나 학습하는데 있어 난제들 중의 하나가 상의 선택 문제라면, 명사에 있어서는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과 격의 선택 문제가 공동으로 악명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체와 부분 간의 대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정황을 파악하는 화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화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화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해석에는 해석자의 지적 분석력이나 취향 뿐 아니라 담화 환경이나 맥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며,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 문제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이폭이 더욱 증대된다.¹⁾ 많은 모국어 사용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상을 선택하건 특별한 의미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듯이,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에 있어서도 격의 차이가 의미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이 비일비재하다. 학자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수가 예컨대 “я не люблю Машу. ‘나는 마샤(대격)를 사랑하지 않는다.’”와 “я не люблю Машу. ‘나는 마샤(생격)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не достиг-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부정문에서 대격의 사용은 특히 구어를 중심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Restan(107)에 의하면 1959년 신문 언어에서 대격의 비율은 38.3%로서 40년전의 21.7%보다 현저히 증가했다. Green(169)에 의하면 문어 텍스트에서는 대격의 비율이 20.7%임에 비해 구어텍스트에서는 41.8%로 증가한다.

нута. ‘합의(주격)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와 “Логоворенности не достигнуто. ‘합의(생격)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의미적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Chvany 139, Падучева(с) 101). 이러한 경우 격 선택의 “동기가 없다”(Restan 104)거나, “설명 불가능하다”(Davison 51)거나, 개인적, 장르적, 혹은 레지스터적 문제 상의 차이 이외에는 동일하다고 간주되곤 한다(Попова(68), Лобанова (203), Дончева(98), Korn(497), Костинский(55) 등도 보라).

이러한 불가시론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격 선택의 문제를 담화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없이 문장차원 내에서 해결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성적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예들이 의미론적 차이를 갖으며 그러한 차이에 대한 동기는 담화-화용차원에서 찾아져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기술방식은 대체로 단일요인적 방식과 다변적 나열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일요인적 접근에서는 한정성(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을 보라), 논리적 강세(Morison), 화제성(Gundel), 부정의 범위(Neidle), 존재의 전제(Keil)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단일요인적 접근은 효율적이기는 하나 필요조건은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거론되는 요인의 개념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다변적 접근에서는 대부분의 러시아 출간 논저들이 택하는 직관적, 경험적 사례 분류 방식 뿐 아니라 통계적 접근(Korn, Restan, Mustajoki & Heino, Green)이나 요인의 다변화(Timberlake, Babby, Ueda)가 시도되기도 한다. 다변적 접근은 단일요인적 접근에 비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많은 경우 의미론적 요인 뿐 아니라 형태론적(격변화유형 -а, 부정사, 명령법 및 조건법), 구문론적(조격보어구문), 어휘론적(관용구나 это), 문체-장르적 요인이나 사례 등 온갖 다양한 차원의 현상들이 무원칙적으로 나열된다. 뿐만 아니라, 항목의 분류기준이나 내용, 수에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분석자들에게 따라 상반되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любить는 대격선호 항목으로 꼽히기도 하고(Davison, Magner, Korn), 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Mustajoki & Heino). 한편, 신체부분은 생격선호 항목으로 꼽히기도 하고(Davison), 대격 선호항목으로 꼽히기도 한다(Uglitsky, Restan). 그런가 하면, 이종부정은 의미 상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대격선호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고(Uglitsky, Дерibas), 이 점이 배격되기도 한다(Korn,

Restan). 상과의 유관성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기도 하고(Timberlake, Ueda, Green, Magner, Restan, Равич), 반대로 무관함이 주장되기도 한다(Дончева).

어떠한 기술방식을 취하건 기존 연구들의 기본적 공통점은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만을 (많은 경우 맥락독립적으로) 대립관계에 놓고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미시적 분석은 필연적으로 예외나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정문과는 어떠한 담화기능 상의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유사한 담화기능을 갖는 다른 구문유형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와 같은 좀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다변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여러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단일요인적 접근의 불충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생격구문과 다른 구문유형들과의 연계를 통해 러시아어의 보편적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두번째 쟁점으로 여기는 것은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의 관계 문제이다. 러시아어 규범문법에서 이 두 구문은 관례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 두 구문에 대한 최근의 저술들도 대다수가 이러한 분리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Klenin, Neidle, Franks and Dziwirek를 보라).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을 분리시키는 가장 명백한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부분(생)격구문이 긍정문에서도 가능하며 양을 나타내는 물질명사의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면 “Нет чаша, ‘차(부분격)가 없다.’”와 같이 대격이나 주격과 대립을 보이지 않는 구문은 부정생격구문인가, 아니면 부분격구문인가? (혹은 중화된 경우인가?)

위에서 제시한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행위성과 관점에 있어서 부정문과 긍정문 간의 차이 및 부정문 내 하부유형들 간의 차이, 부정의 범위, 존재성과 어순의 문제 등도 아울러 다루어질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부정주격구문”, “부정대격구문”이라는 용어는 각기 주격이나 대격을 갖는 모든 부정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부정생격구문을 갖는 경우로 국한하여 사용됨을 밝힌다.

II. 부정문과 행위성/상태성

- (1) a. Враг взял города. '적은 도시들(대격)을 점령했다.'
 b. Города были взяты. '도시들(주격)은 점령되었다.'
 c. Документы появились. '문서들(주격)은 나타났다.'
- (2) a. *Враг взял городов. *'적은 도시들(생격)을 점령했다.'
 b. *Городов было взято. *'도시들(생격)은 점령되었다.'
 c. *Документов появилось. '문서들(생격)은 나타났다.'
- (*는 비문법적 문장임을 나타냄)
- (3) a. Враг не взял города. '적은 도시들(대격)을 점령하지 않았다.'
 b. Города не были взяты. '도시들(주격)은 점령되지 않았다.'
 c. Документы не появились. '문서들(주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 (4) a. Враг не взял городов. '적은 도시들(생격)을 점령하지 않았다.'
 b. Городов не было взято. '도시들(생격)은 점령되지 않았다.'
 c. Документов не появилось. '문서들(생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격 선택은 부정문에서만 가능하다. 왜일까? 긍정문과 부정문은 논리상 균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부정문은 긍정문에 비해 사용맥락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사용빈도수가 떨어지며, 해석 상의 모호함을 좀더 많이 허용한다. 이야기담화의 첫 부분을 “옛날에 한 아이가 살고 있지 않았어요.”라는 부정문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며, “그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중 몇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부정문과 긍정문 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부정문의 이차적, 비사실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부정문은 긍정문처럼 직접적으로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차적으로 관계한다. 즉, 부정문은 잠재적으로 긍정명제를 상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일종의 픽션이다.

부정문에서 단언되는 것은 긍정문에서처럼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가상행위에 대한 부정이므로 부정문에서는 긍정문에서와 달리 행위성의 저하가 일어난다. (여기서 행위성이라 함은 정태적(stative)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이며 정태적 행위는 비(非)행위인 상태(state)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

새한 논의는 아래 IV장을 보라.) 부정문에서 행위성의 저하는 비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부정되는 가상적 행위가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주어져 명백하거나 추론가능하거나 예상 혹은 기대되는 것일 경우 부정되는 것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 된다. 이 경우 긍정문에 비해 사실성이나 행위성이 약화되긴 하지만 질적으로 극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상적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에는 비사실성이 극대화되어 부정문은 긍정문과 행위성 자질의 유무로서 대립하게 된다. 약화유형과 부재유형은 각각 서술부정과 존재부정에 상응한다. X가 행위의 주체이고 Y가 행위라고 할 때, “X가 Y를 했다.”의 부정, 즉, “X가 Y를 하지 않았다.”는 “X가 한 것이 Y가 아니다.”(서술부정)를 의미할 수도 있고, “X에 의한 Y가 없었다.”(존재부정)를 의미할 수도 있다. (“Someone did X.”의 부정이 “Someone didn’t do X.”일 수도 있고 “No one did X.”일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예문 (3a)와 (4a)는 둘 다 (1a)의 부정이지만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맥락을 비교해보면 두 구문이 각기 다른 부정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5) a. Мы думали, что враг возьмёт города. Но враг не взял города, и вернулся в свою страну.

‘우리는 적이 도시들을 점령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적은 도시들(대적)을 점령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b. Враг не взял городов. В стране всё было тихо.

‘적은 도시들(생격)을 점령하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5a)에서는 적이 한 행위가 점령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보이는 서술부정이 일어나는 반면, (5b)에서는 적이 한 행위가 점령이 아님을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 의한 점령 행위가 없었음을 단언하는 존재부정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X가 행위의 대상이고 Y가 행위라고 할 때 “X가 Y를 겪었다.”(예문 (1b), (1c))의 부정은 “X에 대해서 말하자면, X가 겪은 것이 Y가 아니다.”(서술부정)일 수도 있고(예문 (3b), (3c)), “X를 대상으로 한 Y가 없었다.”(존재부정)일 수도 있다(예문 (4b), (4c)). (“Something happened.”의 부정이 “Something didn’t happen.”일 수도 있고 “Nothing happened.”일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예문 (3c)와 (4c)가 가능한 맥락을 비교해 보자.

- (6) a. Мы знали, что существуют документы. Но документы не появились.
 '우리는 서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들(주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 b. Мы искали всюду, но документов не появилось.
 '우리는 온갖 곳을 찾아 보았지만 서류들(생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6a)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술부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6b)에서는 단지 서류들이 발견되는 행위가 없었음을 보이는 존재부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6b)에서는 아예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부정의 유형은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서술부정은 행위의 주체나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화자가 그것의 관점에서 행위의 내용을 부정하는 서술을 하는 것인 반면, 존재부정은 화자가 어느 한 객체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부재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3a)가 행위주 관점을, (3b)와 (3c)가 피의체(혹은 비행위주) 관점을 취한다면, (4a), (4b), (4c)는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한다.³⁾ (4b), (4c)가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에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얻어질 것 같지만, (4a)의 경우 왜 이것을 행위주 관점으로 볼 수 없는가라는 반론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자동구문인 (4b), (4c)에 비해 타동구문인 (4a)는 좀더 행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은 타동구문이(하위차원에서) 갖는 동사어휘의 행위성 및 주어의 행위주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4a)에서는 이러한 타동성이 상위차원에서 취소된다는 점이다. 즉, (3a)와 (4a)는 동일한 하위구조를 갖지만 상위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IV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행위주 관점, 피의체 관점, 상황총체적 관점의 순서로 행위성은 약화되고 상대성은 증대된다.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정문에서는 긍정문에 비해 행위성이 약화되며—(3)과 (1)을 비교해 보라—, 동일하게 서술부정이더라도 피의체 관점은 행위주 관점보다 행위성을 좀더 약화시킨다—(3b)를 (3a)와 비교해보라—. 이미 피동구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듯이, 피의체 관점

3) 여기서 “피의체”는 “행위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겪는 것”이라는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행위주의 유부와 관계없이 행위를 겪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에서는 피의체에 가해진 행위의 결과적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행위주 관점에 비해 행위성이 약화된다(이인영(a)를 보라).

관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행위주 관점과 피의체 관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주격-대격어(nominative-accusative languages)와 능격어(ergative languages)의 구분이나 능동문과 피동문의 구분은 흔히 이 두 관점 간의 차이로 설명되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에서는 상황총체적 관점은 그 비행위성 때문에 행위성의 약화라는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피의체 관점으로 간주되어진다. 즉, 예문 (4b), (4c)는 (3b), (3c)와 마찬가지로 피의체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보아진다. 예문 (4b), (4c)의 생격 명사구가 피의체로 간주되면서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은 능격어적 면모를 띠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Babby(a) I61을 보라).⁴⁾ 부정생격구문에서는 피의체인 타동문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피의체인) 자동문 주어가 동일한 격을 취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점에서는 부정생격구문 뿐 아니라 부분(생)격구문도 마찬가지이므로 일단 이들을 합쳐 생격구문이라 칭하겠다.) 그러나 생격구문은 능격구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 능격구문에서는 행위주-능격이 주변적, 유효적이고 피의체-절대격이 무표적이다. 이 점에서 능격구문은 주격-대격어유형에서의 피동구문과 유사하다. 능격구문과 피동구문은 둘 다 피의체 관점을 보인다. 반면, 생격구문에서 사용되는 생격은 대격이나 주격과 달리 유효적이라는 점에서 능격구문의 절대격과 다르다. Якобсон의 이론을 수정한 Neidle(3)에 따르면, [-처소성, +방향성, +양화성]자질을 갖는 생격은 각 자질에 대해 [-, +, -]인 대격 및 [-, -, -]인 주격과 [+양화성]으로써 구별된다. 양화성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위주나 피의체는 무관한 요인이 된다. 생격구문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상황총체적 관점이 기존 언어이론에서 간과되어 온 이유는 기존 이론들이 상황총체적 관점의 구문적 표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영어나 기타 서구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필자의 견해로는, 상황총체적 관점은 인식적으로 행위주 관점이나 피의체 관점에 비해 좀더 원초적이다. 인

4) 이 점에서는 비대격가설(Unaccusative Hypothesis)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설을 관점적으로 재해석하면 타동사구문이나 비능격 자동사구문은 행위주 관점을 취하는 반면, 비대격구문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는 것이 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예문 (1c)와 (3c), (4c)는 모두 동일하게 비대격구문으로 취급된다. 비대격가설에 대해서는 Belletti를 보라

간의 이성적 인식의 발달이 행위로부터 행위주 및 피의체를 분리시키게 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상황 전체가 총체적으로 보아질 뿐 행위주와 피의체는 비분리, 미분화된 상태로 있게 된다.

생격-주어가 가능한가—예컨대, (4c)에서 “документов”가 주어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상황총체적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주격과 문법적 일치라는 코드적 자질에만 의거하여 주어를 정의하는 전통문법에 대항하여 기능적으로는 생격명사구도 주어로 보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Костинский를 보라), 또 한편으로는 문제시되는 생격명사구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임을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Neidle을 보라). 이 둘의 절충적 안으로, 생격명사구가 심층에서는 주어이지만 표층에서는 비주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Babby(a)를 보라). 논란이 이는 이유는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하는 구문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행위주와 피의체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황총체적 관점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인칭구문이다.⁵⁾ 무인칭구문에서 주격의 부재는 행위주의 부재와 상응하며 대격의 사용도 피의체성을 보장하지 않는다(Lee를 보라). 다음 무인칭구문들을 보라.

- (7) a. В лесу шумит. '숲(처소격)에서 소리가 난다.'
 b. Мне не спится '나(여격)는 잠이 안 온다.'
 c. Меня знобит. '나(대격)는 오한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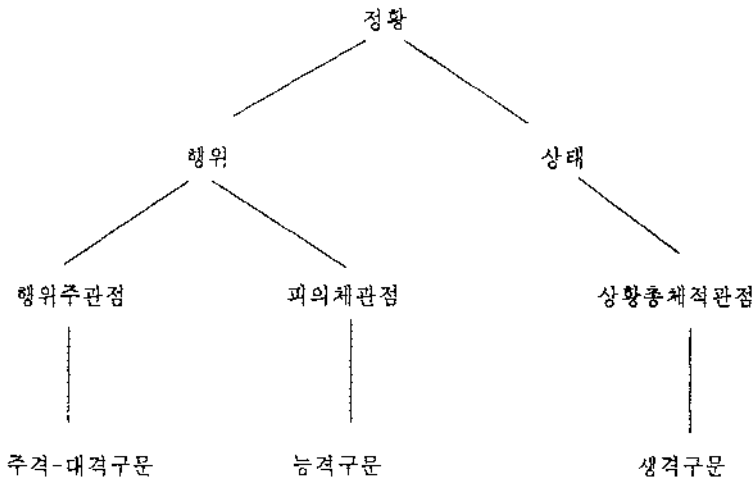
예 (7)의 구문들에는 모두 행위주가 부재한다. (7b)의 “мне”가 주어-행위주가 아님은 (7b)가 “я не сплю. '나는 자지 않는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볼 때 명백하다. 또한, (7c)가 “Что-то меня знобит. '무엇인가가 나를 차갑게 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я чувствую озноб. '나는 오한을 느낀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볼 때, (7c)의 “меня”의 목적어-피의체성도 의심스럽다.

행위주와 피의체의 미분화, 주어와 목적어의 미분화라는 점에서 부정생격구문은 무인칭구문에 매우 근접해 있다. (적어도 자동 부정생격구문은 무인칭구문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생격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주격과 대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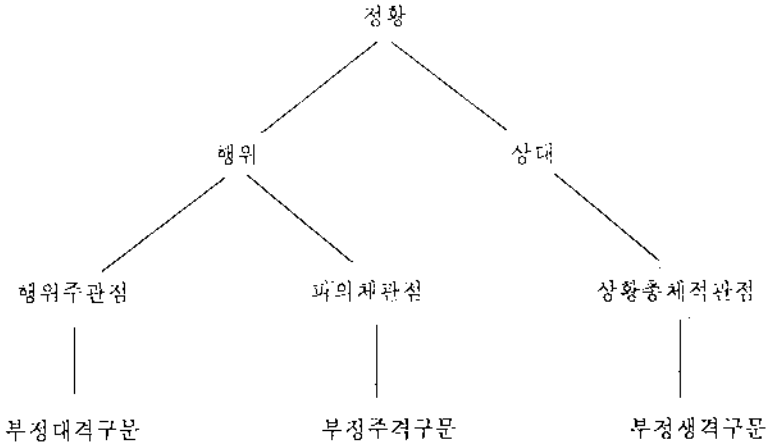
5) 무인칭구문은 통사적으로 문법적 주어가 부재하고 따라서 술어가 3인칭 중성 단수형을 취하는 구문으로 정의된다.

라는 두 형태와 동시에 상응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생격구문이 보이는 주어와 목적어의 미분화 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Не видно деревни. ‘마을(생격)이 보이지 않는다(부인칭).’”가 “Видно деревню. ‘마을(대격)이 보인다(부인칭).’”와 “Видна деревня. ‘마을(주격)이 보인다.’” 둘 다의 부정일 수 있음을 보라. 행위주, 피의체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부정생격구문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되 행위주가 (비록 주변적이긴 하지만) 존재하는 능격구문과는 구별되어진다. 생격구문은 행위주의 부재(혹은 무효화)라는 점에서 능격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반(反)능격어적이다.

행위성 및 관점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구문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러시아어의 부정문 내에서도 행위성과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III. “부정의 범위”에 대하여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이 보이는 관점 상의 차이는 부정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해되어지기 쉽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두 유형 간의 차이를 부정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고 있다(Timberlake, Babby(a), Neidle, Keil을 보라).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범위라는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이해, 적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화용적 차원에서의 부정의 범위에 대한 이해차는 심각해서 Mustajoki & Heino는 부정의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격 선택 요인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정도이다. 예컨대, Babby(a)나 Hajičová, House 등은 부정의 범위를 맥락적으로 새로운 정보성, 즉, 실제성분화(актуальное членение)에서의 레마(рема, theme)와 동일시하는 반면, Neidle은 지시체의 개별성, 즉, 실제성을 부정의 범위의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 명사구는 부정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Babby(a)에 의하면, 부정생격명사구는 레마의 일부로서 항상 부정의 범위 내

에 위치하지만, 부정대격명사구는 레마일 수도, 테마(тема, theme)일 수도 있으므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한편, Neidle에 의하면, 부정대격명사구는 개별적 지시체를 지칭하므로 항상 부정의 범위 밖에 있지만, 부정생격명사구는 개별적 지시체를 지시할 수도, 아닐 수도 있으므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우선, Neidle은 이중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부정대격명사구가 항상 개별적 지시체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Я не люблю суп. ‘나는 스프(대격)를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스프”는 어떤 특정한 개별적 지시체로서의 스프가 아니라 총류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지시체의 실재성은 부정의 범위와 무관하다. 부정의 범위는 해석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지시체가 개별적, 한정적인 것으로 인지되는가 아닌가지지 실제세계에서 지시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다. 실재하는 지시체이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청자의 의식 속에 미처 활성화되지 못한 것일 경우 새로운 정보의 일부로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게 된다(Keil을 보라). Neidle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개별적이므로 “Я не вижу Маши. ‘나는 마샤(생격)가 안 보인다.’”와 “Я не вижу Машу. ‘나는 마샤(대격)가 안 보인다.’”는 둘 다 “마샤”를 부정의 범위로부터 제외시키는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부정의 범위는 격 선택과 무관하다는 말이 되므로 Neidle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Neidle은 고유명사가 주로 부정대격구문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가 아니라 “주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그녀를 오류로 끌고 간 원인이 되었다.)

Neidle에 비하면 Babby(a)의 주장은 좀더 수긍력있다. 그의 식으로 보자면, 동일한 문장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부정의 범위를 갖는다. 예컨대, “Я не ем мясо. ‘나는 고기(대격)를 먹지 않았다.’”에 대해서 NEG(я ем мясо), Я NEG(ем мясо), Я мясо NEG(ем), мясо NEG(я ем), ем мясо NEG(я), Я ем мясо NEG(true)와 같은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Я не ем мяса. ‘나는 고기(생격)를 먹지 않았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석들이 생격명사구와 동사가 항상 부정의 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부정생격의 존재는 그것이 부정의 범위 내에 속함을 신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 아니다. 부정대격도 부정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NEG(я ем мясо), Я NEG(ем мясо)를 보라). 이 점에서 Babby(a)식으로도 부정의 범위는 격 선택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Babby(a)식의 부정의 범위는 단언과 동일시된다. 여기서 단언은 “나는 X를 새로운 정보로 진술한다.”의 의미로 정의된다.⁶⁾ 그러나 펠자의 견해로는 새로움성에 의거한 정의는 단언이 궁극적으로 화자의 의도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보이지 못한다. 화자의 의도에는 무엇을 새로운 정보로 제시할 것인가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단언은 더 이상 새로움성, 래마, 부정의 범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단언은 그것 플러스 알파이다. 즉, 동일한 부정의 범위를 갖지만 상이한 단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IV. 상태-존재작동소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이 상이한 단언이라면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말인가? 화자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하는 문제는 화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황총체적 관점은 단언구조에 존재작동소를 부여함으로써 어떠한 상태가 존재함을 단언한다. 부정생격구문은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과 (부정의 범위를 포함하여) 동일한 하위구조를 갖을 수도 있지만 상위차원에서 존재작동소를 갖음으로써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존재작동소는 객체에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 전체에 존재성을 부여하는, 그래서 결국 (비행위인) 상태를 초래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태-존재작동소(Es)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하겠다.

부정생격구문과 존재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적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들은 예외없이 부정생격구문에서 부정되는 것이 관련객체의 존재성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Dahl, Pesetsky, Ишкович, Keil을 보라). 예컨대, Dahl(31-46)에 의하면, “Я не купил хлеба. ‘나는 빵(생격)을 사지 않았다.’”는 Neg - E_{x3} (X₁ X₃ {buy} & X₃ {bread})라는 구조를 갖으며 “There

6) “나는 X를 참인 것으로(혹은 참이 아닌 것으로) 진술한다”로 정의되는 논리의미적, 명제적 단언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로는 대부분의 진술문이 단언이 되어버린다.

is no bread such that X₁ bought it.”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Chvany(139)는 그렇다면 “я не люблю Маши. “나는 마샤(생격)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There is no Maša such that I like her.”라는 말이 안되는 결론이 나오므로 Dahl의 주장은 오류라고 비판한다. (Dahl은 고유명사의 경우 부정생격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정생격의 사용이 객체의 실재성과 무관한 것은 분명하다. 양동이 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я не вижу дно. ‘나는 바닥(대격)이 보이지 않는다.’”와 “я не вижу дна. ‘나는 바닥(생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두 표현 모두 가능하다는 지적(Magner 539)을 보라. 부정생격구문은 객체의 실재성과는 무관하게 지각 혹은 인식범위 내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구문 또한 객체의 존재에 대한 단언이 아니라 객체가 어떤 처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단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둘은 명백히 다르다.) 부정생격구문에서 존재성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다만, 문제시되는 존재성이 객체의 실재성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에 존재함을 뜻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존재성을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살려 놓으면서 객체존재가설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Ueda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존재성을 객체차원 뿐 아니라 술부차원(자질 및 시·상·법)으로 확대시킨다. 예컨대, “я не слышал этой сонаты. ‘나는 이 소나타(생격)를 듣지 못했다(=들은 적이 없다).”에서 생격으로 표현된 “этой сонаты”는 객체차원에서는 개별성을 갖지만 술부차원에서는 그 자질이 알려지지 않은 즉, 존재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존재성을 객체차원만으로 국한시키는 가설에 비하면 Ueda의 주장은 진일 보하긴 했지만 그녀 자신의 예에서와 같이 객체차원의 개체성이 술부차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면 객체차원이 굳이 고려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Ueda도 존재성을 객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상태-존재작동소는 총체적 상태의 존재를 단언한다. 따라서 상태-존재작동소가 작동되면 동사어휘의미의 행위성은 취소된다. 타동 부정생격구문의 경우는 II장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동 부정생격구문을 보도록 하자.

(8) а. Ответов не пришло. ‘답들(생격)은 오지 않았다.’

Es(s: NEG(Ответы пришли))

б. Ответы не пришли. ‘답들(주격)은 오지 않았다.’

NEG(Ответы пришли)

(9) a. *Нас не пришло. *‘우리들(생격)은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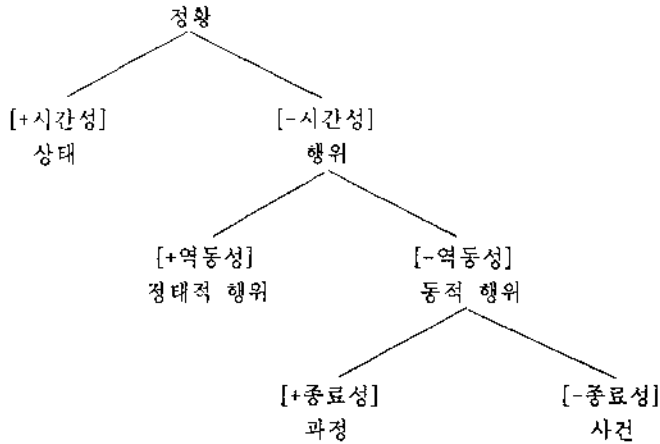
*Es(s: NEG(Мы пришли))

b. Мы не пришли. ‘우리들(주격)은 오지 않았다.’

NEG(Мы пришли)

“오다”는 동작동사로서 명백히 행위적이고 많은 경우 (생명체인) 행위주 관점을 취한다((9b)를 보라). 그러나 (8b)처럼 (비생명체인) 피의체 관점을 취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9b)에서보다 행위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8a)처럼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할 때에는 행위성은 완전히 취소되고 동사어휘의마도 존재적 재해석을 받게 된다. (9a)가 불가능한 것은 1, 2인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것 자체가 관점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 2인칭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존재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을 이루는 특성을 지니며, 대부분의 능격어어들에서조차 능격구문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라.

술부의 어휘의미가 정태적(stative)일 경우—예컨대, 감정표현술어, 피동분사형, 존재동사 등—비(非)정태적인 경우에 비해 행위성을 무효화시키는 상태-존재작동소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고 따라서 어떤 격을 사용해도 의미 상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 간의 의미적 동일성에 대한 주장에 동원되는 예들의 많은 수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담화텍스트차원에서 보면 이 경우에도 미묘하긴 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예들로 들어가기에 앞서 행위성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정황은 [시간성] 자질에 의해 상태(state)와 행위(action)로 구분된다. 행위는 시간의 [역동성] 자질에 의해 정태적 행위(stative action)와 동적 행위(act)로 구분되고 동적 행위는 다시 [종료성] 자질에 의해 과정(process)과 사건(event)으로 구별된다.



위의 분류가 동사어휘의 분류가 아니라 화자가 정황을 보는 시각의 분류라는 점에 유념해 주기 바란다. 동일한 동사이더라도 화자의 시각, 맥락에 따라 혹은 과정으로, 혹은 사건으로 보아질 수 있으며, 행위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고 상태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정태적 동사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Chvany의 주장처럼 “я не люблю Машу.”와 “я не люблю Маши.”는 과연 의미 상의 차이를 갖지 않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이 두 구문 간의 차이는 “я не хочу пить. ‘나(주격)는 마시고 싶지 않다.’”와 “Мне не хочется пить. ‘나(여격)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무인칭).’” 간의 차이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전자에서 화자는 사랑이라는 행위에 대해 선택의 결정권, 즉, 의지를 갖는 주체로, 마샤는 행위의 대상으로 해석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단순히 화자가 마샤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총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떠한 해석이 선호되는가는 궁극적으로 담화텍스트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내가 마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담화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배경적 묘사에 해당하는지라는 화자의 판단에 따라 구문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대체로, 담화의 핵심 부분에서는 행위주와 행위성이 문제시되는 반면, 배경에서는 단지 상황적 묘사만으로 충분하다.

격 선택이 텍스트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10) [Со́ня] прошла к себе и, не зажигая света, села на кровать. Ей хотелось хотя бы на минуту остаться одной... В комнату тихо вошёл Савченко. Он не видел Со́ни и, протянув руку, коснулся её плеча, обнял, стал целовать.

'[소냐]는 자기 방으로 갔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는 일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사브첸코가 소리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소냐(생격)가 보이지 않았고,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는 께안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Davison 38에서 재인용) (이탤릭은 필자 것임)

정황으로 미루어, 사브첸코는 소냐가 방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정생격구문은 소냐가 그의 시야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방으로 들어온 후 그의 그녀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을 좀더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킨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인다. 부정생격구문은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음"을 확인시켜주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만약 부정대격구문이 사용되었다면 소냐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녀를 보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즉, 그의 일련의 행위들을 선행하는 또하나의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⁷⁾

피동형이 사용되는 자동 부정생격구문에서도 술부 자체의 의미가 정태적이라는 점에서 상응하는 자동 부정주격구문과의 차이가 미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타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무는 담화가능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예 (3b)과 (4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 가능하다.

(11) a. Мы храбро защищали города. Города не были взяты.

'우리는 용맹스럽게 도시들을 수호했다. 도시들(주격)은 함락되지 않았다.'

b. (Никаких) городов не было взято и не нужно распускать сплетни.

'(어떤) 도시들(생격)도 함락되지 않았으니 헛소문을 퍼뜨리면 안된다.'

7) 이때 대격이 사용되더라도 부정분과 불완료상의 사용으로 인해 긍정, 완료상이 사용된 다른 행위 묘사들보다는 사건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격이 사용된 경우와 비교하면 좀더 행위적으로 걸친다.

(11a)는 이미 언급되어 알려진 도시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새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도시들”은 담화주제이자 적에 의한 행위의 피의 체이다. 한편, (11b)에서 담화의 핵심은 헛소문에 대한 금지이고 도시들이 함락되지 않은 상황-사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도시들은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상황-사실의 일부일 뿐이다.

존재동사인 *существовать* ‘존재하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 a. Нет, ты не прав. Единороги не существуют.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일각수들(주격)은 존재하지 않아.’

b. Когда ты пишешь, ты забываешь всё и всех на свете. И для тебя жены не существует.

‘너는 글을 쓸 때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이를 잊어버려. 내게는 아내(생격)는 존재하지 않아.’

(Словарь сов. рус. лит. языка에서 재인용)

*существовать*는 실재함, 즉, 본질(*существо*)을 갖음을 의미한다. 실재성은 시공과 무관하게 종(種)의 존재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을 수도 있고(예문 (12a)), 좀더 제한된 맥락(혹은 추상적 공간)에서 객체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예문 (12b)). (12a)는 이미 주어진 담화주제인 “일각수들”이라는 종(種)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화자가 부정하는 서술부정인 반면, (12b)는 “너”라는 제한된 추상적 공간에 “아내”라는 객체가 부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존재부정이다. “아내”라는 객체는 일반적으로는(즉, 종(種)으로서는) 실재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부재한다. 상태-존재작동소는 (12b)에만 적용된다. *существовать*와 달리 *нет*의 경우에는 생격만 가능한 것은 그것이 존재부정만 허용하기 때문이다.⁸⁾ (서술부정일 경우에는 *нет*가 아니라 *не + ∅* 혹은 *не есть*가 사용됨을 보라: “Лингвистика не (есть) наука. ‘언어학은 과학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не был*, *не было*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 *существовать*와 *быть*의 차이는 어원 상으로도 나타난다. *существовать*가 *существо* ‘본질’이라는 명사에 “-овать”라는 행위적 동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것임을 볼 때 *существовать*가 *быть*보다 행위적임이 드러난다. 영어의 *exist*가 ‘come into being’의 의미로부터 나온 것임도 참고하라.

(13) a. Он (когда-нибудь) был в России?

Нет, он (никогда) не был в России.

'그분은 (언젠가)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분(주격)은 (한 번도) 러시아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b. Я туда пошёл, но его там не было.

'나는 그리로 갔다. 그러나 그(생격)는 그 곳에 없었다.'

많은 학자들이 (13a)와 (13b)는 각기 다른 두 BE를 갖으며, (13a)는 "не ходил '가지 않았다, 가본 적이 없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동작동사적 행위주구문으로, (13b)는 존재구문으로 간주한다(Падучева(b), Chvany, Guiraud-Weber를 보라). Chvany(158)는 "я нарочно не буду на вашем концерте. '나(주격)는 의도적으로 당신 음악회에 안 갈 겁니다.'"는 가능하지만 *"Меня нарочно не будет на вашем концерте. *'나(생격)는 의도적으로 당신 음악회에 없을 겁니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대체로, 의도성은 행위주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도성을 반드시 동작적 행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я нарочно не буду на вашем концерте."는 '나는 의도적으로 당신 음악회에 있지 않을 겁니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적어도 구어에서는 "Брат в это время не был дома. '남동생(주격)은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Ицкович: 63에서 인용)"와 같은 표현이 가능함을 보라.9) 이 표현에서 не был은 "가지 않았다"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13a)와 (13b)의 차이는 상이한 두 B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부에 있다. (13a)는 객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화자가 객관적으로 객체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것인 반면, 상태-존재작동소를 갖는 (13b)는 화자가 객체와 동일한 공간 내에 위치하면서 그 공간 내에 객체가 부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1, 2인칭의 경우는 화자가 자신이나 상대방을 객체화시켜 다른 시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라는 시공간에서는 그러한 객체

9) 다음과 같은 예도 не был이 반드시 행위주를 동반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Тусь встал, встрепенулся и пошёл на двор, словно и в печи не бывал! '거위(주격)는 일어나서 날개를 털고는 마치 화덕 속에는 있지도(=넣어지지도) 않았던 양, 다당으로 나갔다.'" (<Лива дивное, чуло чудное>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에서 인용)

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Меня/Тебя нет. ‘나/너는 없다.’”는 불가능하다.)

이상의 예들을 볼 때, 정태술어의 경우에도 부정생격구문의 사용은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과는 달리 비행위적, 상태적 해석을 유발하며, 이는 담화텍스트 구성에 대한 화자의 고려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¹⁰⁾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에 대한 담화차원적 동기 부여에 한 가지 걸림돌은 한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맥락이 반복될 때 각기 다른 격이 선택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라.

- (14) ...дождичком вымочит, солнышком высушит, а солнышко/солнышка не случится — тоже не развалится.
 ‘비로 적시고, 해로 말리고, 해(주격/생격)가 안 나면 그래도 그만이고.’
 (Костинский 55에서 재인용)

위의 예는 동일한 작가가 동일한 맥락을 되풀이하면서 한 번은 주격을, 한 번은 생격을 사용한 경우이다.¹¹⁾ (이와 유사한 경우로 Попова 69, Томсон 229-230의 예들을 보라.)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경우는 어느 격을 선택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적 변이가 아니라 격 선택이 미치는 섬세한 차이를 (의식적이건 아니건) 간파한 작가가 반복적 구문의 단순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다르게 말하기(иносказание)” 기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들이 주로 민속문학이나 “문학적”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라.) 이때의 “다르게 말하기”란 동일한 의미를 단순히 다른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황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더 정확히는 “다르게 보기” 기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예들은 격 선택이 때로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 선택

10) 필자의 틀에서 -а 어미의 경우 동음이의에 의한 애매성을 피하기 위해 대격이 선호되는 문제와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어느 경우 예나 상태-존재작동소 부여 여부가 으뜸규칙으로 작용하고 화자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매성과 같은 하위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а어미가 명백한 대격선행동기를 갖는 경우를 비롯하여 그 어떤 하위적 동기를 갖는 경우들도 100% 대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11) 매우 구어적인 텍스트인 예 (14)에서 “солнышко”와 “солнышка”가 발음 상으로 차이가 없지는 사실은 작가의 놀이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의미적 상이성을 초래한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부분성

상태-존재작동소의 범위는 명제 전체를 포괄하므로 명제 내 논항도 필연적으로 그 작동소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된다. 즉, 객체는 어떠한 상태 속에 놓여져 있는(혹은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는 집합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구현된 무수한 구성원들 중의 어느 한 구성원으로서의 객체일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객체는 부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상태-존재작동소는 논항-객체에 부분성을 할당한다.

부분성은 전체에 대립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부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대립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립의 가능성 여부는 객체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관심이 양적인데 있는가, 질적인데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대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잣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화용적으로 결정된다. 동일한 객체이더라도 양적 관심의 경우에는 전체와 부분의 대립이 가능한 반면, 질적 관심의 경우에는 전체와 부분은 무관한 요소이다. 전체와 부분 간의 대립이 가능한 경우, 전체에 대한 이해는 가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가시적 이해란 상황적 혹은 맥락적으로 주어진 객체(들)을 전체로 보는 것이고, 잠재적 이해란 가시적 이해의 확장, 추상화를 통해 잠재적으로 동일한 자질을 갖는 모든 객체들을 전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시적 전체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부분은 주어진 것의 일부이므로,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가 주어진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잠재적 전체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부분은 잠재적 전체—이것이 앞서 집합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한다—를 구성하는 임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갖을 뿐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주어진 것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존재가 전제되지도 않는다.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는 모두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들이 왔다. (그들 중) 많은 수/세 명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에서 “많은

수/세 명”은 전자적 의미의 부분성을 띤다(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예로는 Eng, Klerin을 보라). 그러나 상태-존재작동소가 논항에 부분성을 할당한다고 할 때의 부분성은 후자적 의미에서이다.

부정생격구문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부분성 개념은 후자이므로 지금부터는 부분성을 어떠한 집합을 구성하는 임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고유명사나 지시대명사로 표현되는 경우와 같이 유일하고 본래적으로 한정적인 지시체의 경우에도 부분성이라는 양화적 이해가 유효할 수 있는가? 화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답은 긍정적일 수 있다. “я не видел Маши. ‘나는 마샤(생격)를 못 보았다(=마샤가 안 보였다).’”를 보자. “마샤”는 특정한 자질을 갖는 유일하고 한정적인 지시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샤는 시공간적으로 구현되어지는 무수한 마샤들의 집합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마샤”는 화자의 시야라는 시공간 내에서 구현되는 어느 한 마샤로서 위의 예문은 그러한 구성원으로서의 마샤가 없음을 보이는 것일 뿐 지시체로서의 마샤의 실재성과는 모순이 되지 않는다. “я не слышал этой сонаты. ‘나는 이 소나타(생격)를 듣지 못했다(=들은 적이 없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이 소나타”의 지시체는 예컨대, 베토벤의 비창소나타와 같이 특정한 자질을 갖는 객체이다. 그러나 비창소나타는 빌헬름 켐프가 친 구현체에서부터 무명의 어떤 중학생이 친 구현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현체들을 갖으며, “내가 듣지 못”한 것은 그 수많은 구현체들 중의 어느 하나이다.

부분성을 이처럼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형태적으로 부분격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나, 러시아어와 같이 부분격이 존재하되 매우 제한적인 언어에서는 부분성이 부분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 표현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¹²⁾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어에서는 대부분의 부분격이 생격과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아직도 지배적인 주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생긴다. 두 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한 예로 Neidle(44-48)을 보자. 그녀에 의하면, 첫째, 한정적 명사구가 부정생격구문에는 가능하지만 부분(생)격구문에는 불가능하다. 둘째, 셀 수 있는 단수명사 또한 전자에서는 가능하지만 후자에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부분(생)격구문은 긍정문에서도 가

12) 러시아어의 부분격 어미 -y는 극소수의 남성형 물질명사로 제한되어 있다. 많은 경우 부분격은 생격어미 -a로 대체된다. 본 논문에서는 -y를 갖는 경우는 부분격으로, -a의 경우는 부분생격으로 칭하겠다.

능하다. 넷째, 부정생격구문에서는 통상 부분격 -y보다 -a가 사용된다. 다섯째, 다른 슬라브어들 중에는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어있는 경우들(세르보-크로시아어, 슬로베니아어)이 있다.

그렇다면, “Убытку нет. ‘손실(부분격)은 없다.’”, “Хлеба будет или совсем не будет. ‘빵(부분생격)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 “Он не дал мне хлеба. ‘그는 내게 빵(부분생격)을 주지 않았다.’”와 같은 구문들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부정문에서는 부분(생)격적 해석이 의도되었는지 아닌지를 명백히 밝히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Neidle의 반대근거에 대한 필자의 조목별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생격구문에서 한정적 명사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시체의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한정성을 뜻할 뿐, 화용적으로는 그것도 부분(생)격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비한정적이다. (위의, “임의의 구현체들”에 대한 논의를 보라.) 둘째, 의미적으로 한정적인 명사구나 셀 수 있는 단수명사가 부분(생)격구문에 불가능한 것은 부분(생)격구문의 점차적 축소로 인해 그것이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예컨대, 물질명사—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homson(250)에 의하면, 비규범어에서는 “Дай мне твоей книги. ‘내게 네 책(생격) 좀 나오.’”와 같은 구문도 가능하다. (핀란드어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고유명사가 구문에 따라서는 부분격이 가능함을 고려하라.) 셋째, 부정생격구문은 정의 상 부정문에 국한되므로 그 점이 그것을 부분(생)격구문과 구별시키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넷째, “Чаю нет. ‘차(부분격)는 없다.’”는 “Чая нет. ‘차(부분생격)는 없다.’”보다 결코 덜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두 구문이 언어에 따라 다른 발전 방향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두 구문이 별개의 것은 아닐 수 있다. 부정문의 이중적 측면을 각 언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생격이 어떤 언어에서는 부정문에서 좀더 오래 보존되고 어떤 언어에서는 부정문에서 좀더 빨리 쇠퇴할 수 있다. 부정문은 한편으로는 행위성의 약화로 생격(혹은 부분격)의 사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그것을 좀더 오래 보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이고 이차적이고 유표적 구문이라는 점에서 긍정문에 비해 유표적 격의 쇠퇴를 좀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다. 부분성에 관한 한, 러시아어는 다른 슬라브어들보다도 오히려 핀란드어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 않지만 러시아어의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언어로서 러시아어에서보다 부분격이 좀더 잘 보존, 발전되어 있는 핀란드어에서 부정문의 목적어는 반드시 부분격으로 나타난다.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 간에는 일종의 병행성이 있다. 우선, 두 구문 모두에서 문제시되는 명사구는 직접격—즉, 주격과 대격—과만 상용성을 보인다. 둘째, 자동문의 경우 둘 다 문법적 불일치를 보인다. 셋째, 두 구문 모두 쇠퇴 경향을 보인다. 러시아어에서 점차 목적어=대격, 주어=주격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부정생격구문은 점차 수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서 부분(생)격구문도 점차 구어나 속어, 방언으로 제한되어 가고 있으며 부분격의 가장 명시적 형태인 어미 -y는 허용되는 어휘의 수나 사용빈도 면에서 명백히 쇠퇴하고 있다.¹³⁾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그러한 주장을 펴는 Neidle(42)에서조차 두 구문 모두 격은 q라는 동일한 범위표지에 의해 할당된다. 단, 그 원천이 각기 달라서 부정생격구문에서는 부정소사 не에 의해, 부분(생)격구문에서는 QP(=양화구)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녀 식으로는 q는 어떤 때는 부정의 범위를, 어떤 때는 양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며 부정과 양화는 별개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을 양화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Pesetsky는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을 모두 공(空)양화사구문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부정생격구와 부분(생)격구는 둘 다 (공양화사를 갖는) QP로서 NP인 부정대격구/부정주격구와 구별된다. QP와 NP 간의 대립은 “Пришло шесть человек. ‘여섯 명이 왔다(중성 단수 과거).’”와 “Пришли шесть человек. ‘여섯 명이 왔다(복수 과거).’” 간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동사와의 일치 여부로 판단된다.¹⁴⁾ Pesetsky의 견해는 상당히 수긍력있다. 그러나 수사구가

13) 러시아어에서 부분격이 생산적이라는 Neidle(46)의 주장은 오류이다. 부분격이 사라지는 환경은 때로는 임의적이다. “Он выпил чаю. ‘그는 차(부분격)를 마셨다.’”는 가능한데 *“Он съел супу. ‘그는 스프(부분격)를 먹었다.’”는 불가능한 체계적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부정생격구문에서는 -y어미보다 -a어미가 주로 쓰인다는 지적(Neidle 46)은 형태적으로 어미 -y가 쇠퇴함을 보이는 것이지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14) 이 두 수사구문에 대해 Franks(231)나 Babby(b)는 두 구문 모두 주어 NP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Пришли эти шесть человек. ‘그 여섯 명이 왔다(복수 과거).’”는 가능한데 *“Пришло эти шесть человек. *‘그 여섯 명이 왔다(중성 단수 과거).’”는 불가능한 짐을 설명 못한다. 한편, Neidle(chap. 4)은 두 구문 모두 QP를 갖되 전자에서는 주어가 q에 의해 목적어로 강등하는 어휘강등범칙(Lexical Demotion

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되면 그것이 QP인지 NP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목적어 위치에서 부정생격구와 부정대격구가 각각 QP 및 NP라는 주장은 동사와의 일치 이외의 다른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데 Pesetsky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좀더 심각한 문제는 왜 어떤 때에는 QP가, 어떤 때에는 NP가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무에 따라 [+P(=부분성)]자질의 할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필자 식 접근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Пришло шесть человек.”에서는 상태-존재작동소에 의해 “шесть человек”에 [+P]가 할당되는 반면, “Пришли шесть человек.”에서는 그렇지 않다.

[+P]의 할당은 부정소사와는 무관하다. 불일치 수사구문 뿐 아니라 “я жду автобуса ‘나는 버스(생격)를 기다린다’”, “я ищу работы ‘나는 일(생격)을 찾는다.’”와 같은 구문이나 부분(생)격구문은 긍정문이지만 상태-존재작동소에 의해 [+P]를 갖는다.¹⁵⁾ 부분(생)격구문을 주격구문과 비교해 보자.

(15) a. Я пошёл на площадь: людей собралось!

‘나는 광장으로 갔다. 사람들(생격)이 [많이] 모여 있었다!’

b. Лошадь упал. Люди собрались.

‘말이 쓰러졌다. 사람들(주격)이 모였다.’

부분생격구문인 (15a)는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반면, 주격구문인 (15b)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사건을 묘사한다. (15b)에서와 달리 (15a)에서 동사는 행위적 어휘의미를 거의 잃고 존재동사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 부분(생)격구문은 존재구문의 한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¹⁶⁾

Rule)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 규칙은 저면상 생략키로 한 여러 이유에서 비직관적이고 비효율적이다.

15) “Я жду автобуса.”유형의 동사군의 특징은 생격을 요구하되 부분(생)격구문과 마찬가지로 점차 대격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동사군이 생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동사어휘의미가 대상의 미래적 존재를 추구하는 것임과 연관되어 있다. 이때 생격-대상은 비한정적 해석을 받는다. Babby(a:79)가 이 경우를 부분(생)격으로 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6) “Сам пришёл в город: там людей, там дверей! ‘그 자신이 도시로 갔다. 그곳에는 사람(부분생격)도, 문(부분생격)도 [어짜나 많던지]!’”(〈Несмеяна-Царевна〉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에서 인용)와 같이 부분생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존재구문

타동 부정생격구문에서 자동 부정생격구문과 달리 하위차원에서의 타동성 때문에 상태-존재작동소의 기능이 비교적 덜 참여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동 부분(생)격구문에서도 자동 부분(생)격구문에 비해 상태-존재작동소의 기능이 비교적 덜 참여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능한 이상적 맥락을 구성해 보면 상태-존재작동소의 존재가 확인된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 (16) a. Он выпил чаю. Поэтому ему больше не было жарко.
 '그는 차(생격)를 (좀) 마셨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
 b. ?Он выпил чай. Поэтому ему больше не было жарко.
 '?그는 차(대격)를 마셨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
 c. Он выпил чай и (потом) ушёл.
 '그는 차(대격)를 마시고는 떠났다.'

부분격구문은 어느 정도의 차가 그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피펙트적 상태를 묘사하므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만(예문 (16a)), 대격구문은 아오리스트적 행위를 묘사하므로 (16c)처럼 사건의 연쇄를 보일 때에는 적합하지만 (16b)의 경우는 (16a)에 비해 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¹⁷⁾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어 긍정 부분(생)격구문에서는 불완료상 및 현재시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Он пил/пьёт чаю. *'그는 차(부분격)를 마셨다/마신다(불완료상).'" 혹은 *"Людей собиралось/собирается. *'사람들(부분생격)이 모였다/모인다(불완료상).'"는 불가능하다. 사상과 격 간의 이러한 상관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까지 찾아지지 못했다(Jakobson(b), Klenin, Dahl & Karlsson, Filip을 보

의 한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 존재구문에서 [+P]가 표층에서 생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어의 주어어(subject language)화 경향과 연관되어 보인다. 그렇다면 존재구문에서 양화성이 특별히 강조될 경우에만 생격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Левушек было лве. '소년들(생격)은 누렁이었다.'"와 같은 소위 "생격태미구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17) "Он выпил чаю и (потом) ушёл."은 부정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16c)에 비해 사건의 연쇄성이 느슨해지고 전진속도가 늦추어진다. 이는 (16c)에서는 일관적으로 행위주 중심이 취해지는 반면, 이 경우에는 총체적 관점으로부터 행위주 관점으로서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라). 필자의 견해로는, 이 문제는 러시아어의 부분(생)격이 양적 단언을 선호하며, 양적 단언은 상태(=비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어에서 동사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완료상 과거형—드물게는 미래적 완료상—을 통해 퍼펙트적 의미를 갖을 때이다.¹⁸⁾ 따라서 러시아어의 부분(생)격은 거의 대부분이 완료상 과거형과 짝을 이룬다.

이와는 달리, 부정생격구문은 상적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생격구문에서는 완료상과 대격, 불완료상과 생격 간의 상호선호성이 자주 거론되곤 한다.¹⁹⁾ 얼핏 보면, 이러한 경향성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생)격구문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에 또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는 반박되어질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상호선호성은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반대의 결합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선호성의 근거는 상과 격이 모두 전체와 부분 간의 독립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완료상과 대격은 전체라는, 불완료상과 생격은 부분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상이 문법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핀란드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격이 상적 해석의 기능까지 맡게되어 부분격의 사용이 불완료상적(=지속적) 해석을 유발하지만, 러시아어와 같이 문법적 상이 매우 발달된 언어에서는 상과 격이라는 두 범주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상호간섭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둘째, 이 문제는 부정문의 특성, 긍정문과 부정문 간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이지 부정생격과 부분(생)격 간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

18) 아오리스트(=단순과거)적 사용은 양과 무관하게 행위성만을 강조하므로 곤란하고 임퍼펙트(=반과거)적 사용은 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양적 단언이 불가능하다.

19) 대격과 완료상 간의 상호선호성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라.

	완료상	불완료상
Mustajoki & Heino(76)	49.8	34.7
Restan(97)	40.1	25
Green(175)	30	21

그러나 Green에 의하면 구어에서는 대격과 완료상 간의 선호성은 무너진다.

Green(176)	40	41
------------	----	----

니다. 부분(생)격구문의 경우 긍정문이 보이는 상적 제한이 상응하는 부정문에서는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부분(생)격구문이 부정되면 부정생격구문으로 변한다는 말인가? (핀란드어에서도 부정문에서는 부분격만 가능하므로 격에 의한 상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긍정문에서와 달리 부정문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 모두가 가능한 이유는 양적 단언의 선결조건인 종료성을 부정하면 미종료일 수도 있고 부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Он выпил^p чаю.”의 부정은 미종료라면 “Он не выпил^p чаю.”, 부재라면 “Он не пилⁱ чаю.”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상의 문제는 결코 부분(생)격구문과 부정생격구문을 별개의 것으로 보도록 이끌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Он не выпил чая/чаю.” 혹은 “Нет чая/чаю.”가 부정생격구문인가, 부분격구문인가라는 문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두 예 모두에서 “차”에는 상태-존재작동소에 의해 부분성이 부가된다. 마찬가지로, “Я ни часу не спал. ‘나는 한 시간(생격)도 못 잤다.’”와 같은 측정부사 부정구문에서도 부정생격구문이나, 부분격구문이나라는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구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часу”가 부사로서 논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Babby, Pesetsky, Neidle은 측정부사가 목적어 논항처럼 행동한다는 점을 들어 이 구문도 부정생격구문으로 취급한다. 한편, Franks and Dziwirek은 측정부사가 비논항으로서 목적어와 다르며—“Я ни одной минуты не смотрел телевизора. ‘나는 일 분(생격)도 TV(생격)를 보지 않았다.’”가 가능함을 보라—, 다른 슬라브어들의 경우 부정생격구문은 없어도 부분(생)격구문이 있을 때에는 측정부사 부정구문도 있지만(세르보-크로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은 있어도 부분(생)격구문이 없을 때에는 측정부사 부정구문도 없음(슬로베니아어)을 들어 이를 부분격구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나오는 이유는 문제의 구문에서 부사가 목적어를 닮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목적어가 동사의 지배를 받는 자매임에 비해 여기서 부사는 동사가 아니라 그 위의 동사구에 부가되어 동사구의 자매가 된다. 따라서 부사는 목적어와 동일 동사구 내에 포함되지만 목적어와 무관하게 격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구문을 부정생격 목적어구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사와 목적어가 각기 다른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이 구문을 부정생격구문이 아니라 부분격구문으로 보자는 주장은 첫째,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언어유형론적 근거는 신빙성이 없고, 둘째, 부분격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Franks and

Dziwirek은 부분격을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주어진 것의 일부”, 즉, “보다 적은 양”의 의미로 사용해서 “Я ни часу не спал.”이 “한 시간보다 적은 양을 잤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분격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예 (15a)와 같이 “많다”는 해석을 갖게 되는 일반적 부분(생)격구문의 경우 문제가 생긴다. Franks and Dziwirek의 좀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들이 위의 표현에서 자는 행위가 전제된다고 보는데 있다. 그들 식으로는 위의 표현이 “자는 행위가 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를 단언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화자의 실질적 목표는 그가 거의 자지 못했음을 보이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의 주목적은 행위의 부재상태를 보이는데 있는 것이지 행위의 양화적 면모를 보이는데 있지 않다. 여기서 측정부사구는 화자가 생각하는 최소단위로서 행위는 그것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결국 부재에 가깝게 해석된다. 강조소사 *ни*가 자주 동반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긍정문 “Я спал час. ‘나는 한 시간(대격)을 잤다.’”나 부정대격을 사용한 “Я не спал час. ‘나는 한 시간(대격)을 자지 않았다.’”에서는 단언의 초점이 부사에 있다. 잔 행위는 전제되거나 기껏해야 allegation일 뿐이다.²⁰⁾ 그러나 부정생격구문에서는 명제 전체가 상태-존재작동소의 범위 내에 있게 되고 따라서 자는 행위의 부정도 그 안에 포함된다. “Лучшие умы человечества ночью не спали.(Babby(a:85)에서 재인용)”와 같은 예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인류의 최고 두뇌들은 밤잠도 자지 않았다.”를 뜻하는 이 문장을 “인류의 최고 두뇌들은 자되 며칠밤보다 적게 잤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상을 볼 때, 측정부사 부정구문은 동사구에 부가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 부정생격구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

VI. 여순에 대하여

부정생격구문에서 상태-존재작동소는 명제 전체를 포괄하므로 적어도 상위 차원에서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분리되지 않은 한덩어리로 인식되어진다. 좀더 하위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분리성은 상위의 비분리성에

20) allegation이란 전제되지도, 단언되지도 않는 제3의 부분을 일컫는다. allegation에 대해서는 Crockett(b), Hajičová를 보라.

의해 취소된다. 이렇게 명제 전체가 총체적으로 보아지는 경우를 제언적(thetic)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제언성에 대해서는 Kuroda를 보라). 이와는 달리, 명제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알리는 주부(subject, субъект)와 그 주부에 대해 서술하는 술부(predicate)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언적(categorical)이라고 칭한다. 제언성/정언성은 명제의 논리의미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장의 문법적 주어/술어와는 구별되어짐이 명백하다. 보다 미묘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담화차원과 관계이다. Babby(a)는 이 두 차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테마(тема, theme)와 레마(рема, rheme)를 갖는 문장은 정언적인 것으로, 테마 없이 레마만 갖는 문장은 제언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에게는 실제성분분석과 명제의 의미론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담화차원에서는(명제의 의미-내용과는 별도로) 효과적 정보전달을 위해 문장발화의 구성조직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시된다. 이러한 구성조직에 대한 고려의 표현을 화제구조라 칭한다면 정언성/제언성과 화제구조는 별개의 차원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언성/제언성과 화제구조를 분리시켜 생각하게 되면 부정생격구문에서 생격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부정생격구문을 어순에 관계없이 모두 테마가 없는 제언적 구문이라고 보는 Babby(a)는 문두에 나오는 부정생격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차원의 테마와 담화차원에서 주어진 것을 구별하고 문두 부정생격구는 테마는 아니되 담화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장을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담화의 순탄한 연결을 통해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의 예들 중 하나를 보자.

(17) ...девочка Катя завела собаку... До этой поры ни у кого из жильцов собак не водилось.

‘꼬마 까치는 개(대격)를 키웠다... 그 때까지 어떤 주민들에서도 개들(생격)이 사육된 적이 없었다.’ (Babby(a) 117에서 재인용)

위의 예를 보면, Babby가 말하는 담화 상 주어진(혹은 주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나포라나 직시에 의해 주어진 표현이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этого”, “такого”, “подобного”, “её”와 같은 지시사나 인칭대명사가 자주 문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Babby(a) 118-119의 예들을 보라). 중요한 점은 아나포라는 표현차원에서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내용차원의

동일성, 즉, 동일지시체성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 (17)에서 첫 문장의 “собаку”와 두번째 문장의 “собак”은 동일표현이지만 동일지시체적은 아니다. 첫 문장의 “개”는 까치가 키우는 특정한 어떤 개임에 비해, 두번째 문장의 “개들”은 개라는 집합에 속하는 잠재적이고 임의적인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만약 아나포라가 동일지시체적이라면 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을 보라.

(18) Калитин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писал статьи и посылал их ... в редакции ... Но статьи не печатали.
 ‘칼리진은 가끔씩 논문들을 써서 그것들을 편집위원회들로 보내곤 했다... 그러나 논문들(대격)을 게재하지 않았다(=논문들은 게재되지 않았다).’ (Davison 55에서 재인용)

예 (18)에서 두번째 문장의 “논문들”은 앞 문장에서 언급된 동일지시체적인 바로 그 “논문들”이다.

문제는 문두의 부정생격이 Babby의 주장처럼 반드시 담화적으로 주어진 것인가에 있다.²¹⁾ 이 문제는 화제화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 화제화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담화 상 주어진 것으로부터 발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립적 어순으로부터의 일탈을 통해 어떤 문장 요소를 좀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자의 경우 화제는 이차적 강세를 받고 초점 강세는 다른 요소에 떨어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화제 자체가 강세를 받으며 담화 상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화제가 될 수 있다. 화제가 초점강세를 받는 경우는 대조 맥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강세를 동반하는 문두 대격이나 주격이 그 예이다.²²⁾

(19) ... она достала из портфеля толстую книгу ... а записную книжку ... не достала.

21) Brown(90) 또한 문두에 오는 부정생격구는 존재적 해석이 아니라 전제적 해석을 받는 것으로 본다.

22) 상당수의 연구들은 문두를 대격선호위치로 본다. Magner, Uglitsky, Дерibas, Timberlake를 보라. 그 이유의 한 예를 들면 문두가 논리적 강조의 위치이며 논리적 강조는 대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ustajoki & Heino의 통계에 의하면 문두와 대격 간의 상관성은 없다.

'...그녀는 서류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다.... 그러나 메모장(대격)은 ... 꺼내지 않았다.' (Davison 55에서 재인용)

예 (19)는 이중 대조의 경우로, “메모장”은 “두꺼운 책”과, “꺼내지 않았다”는 “꺼냈다”와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메모장”은 담화 상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문두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조맥락이 아니더라도 강조가 필요한 경우 화제에 초점강세가 올 수 있다. 부정생격구문의 경우 부정의 강조가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 다음 예들을 보라.

- (20) a. Упрёков я тебе никаких не пишу ...
 '결코 질책(생격)을 내게 쓰는게 아니다.' (Дерibas 21에서 재인용)
 б. Я испытывал голод, холод, болезни,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личного счастья не знал...
 '나는 기아와 추위와 질병과 자유의 박탈을 겪었다. 개인적 행복(생격)을 나는 알지 못했다.' (Дерibas 21에서 재인용)

위의 예들에서 부정생격구문이 행위의 총체적 부재상태를 보이기는 화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예 (20)에서 화제화는 ни одного/ни одно или никаких와 같은 부정강조사처럼 부정을 강조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로 문두의 부정생격은 예 (20a)에서처럼 부정강조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²³⁾

한편, 긍정문에서는 격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어순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자동문의 경우 동사+주어의 어순은 제언성까지 신호하기도 한다. 전형적 예로, 존재문의 경우 중립적 어순은 동사+주어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어서 문장강세가 동사에 떨어지는 경우 동사+주어의 어순이더라도 정언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Пришел(강세) поезд. '기차가 [드디어] 왔다.’”는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어순을 도치시킨 것일 뿐, “Поезд пришел. '기차가 왔다.’”와 마찬가지로 “기차”에 대한 서술이다. 이 점을 볼 때, 긍

23) 부정생격구가 문두가 아니면서 동사 앞에 오는 어순의 경우도 화제화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예: “...ты мне тряпочку не подарила, а она мне платочек подарила. '너는 내게 냘마조각(생격)도 안 주었지만 그녀는 내게 껌숫수건을 주었지.’”(〈Баба-яга〉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에서 인용)

정 존재문에서도 역시 어순의 일차적 기능은 화제구조를 보이는 것이고 제언성은 부수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순 및 화제화는 담화의 효율적 연결을 위해 혹은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기제로서 어느 목적을 위해서나 생격과 대격/주격이 다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격 선택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격 화제화와 동기	대격/주격	생격
주어진 표현	동지시체적	동지시체적 아님
초점의 화제화	대조의미	부정의 강조

VII. 결론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을 긍정문, 부정대격 및 부정주격구문, 그리고 부분(생)격구문과 비교해 본 결과, 상태-존재작동소 및 그것이 초래하는 부분성은 부정생격구문을 긍정문, 그리고 부정대격 및 부정주격구문과 구별시키는 한편, 부분(생)격구문, 나아가서는 존재구문 및 무인칭구문과 한 범주로 묶어주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상태-존재작동소가 존재하는 구문들이 러시아어에서는 비교적 생산적이라는 사실은 러시아어가 서구어나 기타 인도유럽어들에 비해 아직도 상황총체적 관점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정생격구문이 퇴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태-존재작동소라는 거대자질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어의 부정생격구문이 체코어에서와 같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지는 의문시된다.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는 다루지 못한 부분성과 상의 상관관계, 그리고 양화와 총류성의 문제, 특히 소위 “생격테마구문”의 문제는 필자의 다음 논문들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성과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러시아어의 인접어이자 기저어로 볼 수 있는 핀란드어와의 좀더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전혀 다루지 않은 부정사(infinitive) 구문과 같이 통사적으로 좀더 복잡한 구문들의 문제 또한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국어 문헌>

- 이기용(1997) "러시아어에 있어서 부정생격의 논리-의미적 특성", 『언어학』 21, 219-240.
- 이인영(a)(1987) "러시아어 피동구문의 기능: 관련구문들과의 상관성 연구", 『어학연구』 23:3, 553-582.
- _____ (b) (1998)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의미-화용적 접근", 『러시아연구』,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8:2, 95-157.

<영어 및 서구어 문헌>

- Babby, Leonard H.(a)(1980) *Existential Sentences and Negation in Russian*. Ann Arbor: Karoma Publishers, Inc.
- _____ (b)(1986) "The Locus of Case Assignment and the Direction of Percolation: Case Theory and Russian", in Richard D. Brecht and James S. Levine, eds. *Case in Slavic*.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Inc.
- Bailyn, John(1997) "Genitive of Negation is Obligatory",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4, 84-114.
- Bechert, J.(1979) "Ergativity and the Constitu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in Frans Plank, ed. *Ergativity*. London: Academic Press.
- Belletti, Adriana(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1, 1-34.
- Borshev, Vladimir and Barbara H. Partee(1998) "Formal and Lexical Semantics and the Genitive in Negated Existential Sentences in Russia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6, 75-96.

- Brown, Sue(1999) *The Syntax of Negation in Russian: A Minimalist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Chesterman, Andrew(1991) *On Definiteness: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and Fin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vany, Catherine V.(1975) *On the Syntax of BE-Sentences in Russian*. Cambridge, Mass.: Slavic Publishers, Inc.
- Comrie, Bernard(1979) "Definite and Animate Direct Object: A Natural Class", *Linguistica Silensiana* 3, 13-21.
- Crockett, Dina B.(a)(1976) *Agreement in Contemporary Standard Russian*. Cambridge, Mass.: Slavica Publishers, Inc.
- _____ (b)(1977) "The Scope of Denial in Russian Negative Sentences", *Lingua* 43, 229-245.
- Dahl, Östen(1969) *Topic and Comment: A Study in Russian and General Transformational Grammar*. Slavica Gothoburgensia 3. Göteborg.
- Dahl, Östen and Fred Karlsson(1976) "Verbal Aspects and Object Marking: A Comparison between Finnish and Russian", *International Review of Slavic Linguistics* 1:1, 1-29.
- Davison, M.(1967) *The Use of the Genitive in the Negative Constructions. Studies in the Modern Russian Language*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sing, Molly(1996) *Indefinit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Enç, Mürvet(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 1-25.
- Filip, Hana(1996) "Integrating Telicity, Aspect and NP Semantics: The Role of Thematic Structure",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3, 61-96.
- Fowler, George Hayden(1987) *The Syntax of the Genitive Case in Russian*.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Fowler George and Michael Yadroff(1993) "The Argument Status of Accusative Measure Nominals in Russian",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1:2, 251-279.
- Franks, Steven(1986) "Case and the Structure of NP", in Richard D. Brecht

- and James S. Levine eds. *Case in Slavic*.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Inc.
- _____ (1995) *Parameters of Slavic Morpho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s, Steve and Richard House(1982) "Genitive Theme in Russian", *CLS* 18, 156-168.
- Franks, Steve and Gerald R. Greenberg(1988) "Agreement, Tense, and the Case of Subjects in Russian", *CLS* 24, 71-86.
- Franks, Steven and Katarzyna Dziwirek(1993) "Negated Adjunct Phrases Are Really Genitive",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1:2, 280-305.
- Givón, Talmy(1975) "Negation in Language: Pragmatics, Function, Ontology",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18, 59-116.
- Green, B. D.(1979) "Factors in the Choice of the Case of Direct Objects after Negated Transitive Verbs in Russia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57:2, 161-186.
- Guiraud-Weber, Marguerite(1984) *Les propositions sans nominatif en Russe moderne*. Paris: Institut d'études slaves.
- Gundel, Jeanette K.(1977)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Reproduced by the IULC.
- Hajičová, Eva(1975) "Negation and Topic vs. Comment", *Philologica Pragensia* 16:2, 81-93.
- Hoop, Helen de(1996) *Case Configuration and Noun Phrase Interpreta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 Hoover, Aijfa(1984) "Pragmatic Constraints of Case and Word Order in Finnish: Implication on Definiteness", *CLS* 20, 192-202.
- House, Richard Carleton(1982) *The Use of Genitive Initial Sentences for the Specification of Quantity in Russian*. Ph. Dissertaion. Cornell University.
- Iktonen, Terho(1979) "Subject and Object Marking in Finnish: An Inverted Ergative System and an 'Ideal' Ergative Sub-System", in Frans Plank, ed. *Ergativity*. London: Academic Press.
- Ioup, Georgette(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

- guistics and Philosophy* 1, 233-245.
- Jackendoff, Ray S.(1971) "On Some Questionable Arguments about Quantifiers and Negation", *Language* 47:2, 282-297.
- Jakobson, Roman(a)(1971) "Beitrag zur allgemeinen Kasuslehre: Gesamtbedeutung der russischen Kasus", in *Selected Writings*. Vol. II. The Hague: Mouton.
- _____ (b)(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in *Selected Writings*. Vol. II. The Hague: Mouton.
- Keil, Rolf-Dietrich(1970) "Zur Wahl des Objektkasus bei verneinten Verben im modernen Russisch", *Zeitschrift für slavische Philologie* XXXI:1, 109-133.
- King, Tracy Holloway(a)(1994) "The Structure of Russian Clausal Negation",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2, 287-297.
- _____ (b)(1995) *Configuring Topic and Focus in Russian*. Stanford: CLSI Publications.
- Klien, Emily(1978) "Quantification, Partitivity, and the Genitive of Negation in Russian", *International Review of Slavic Linguistics* 3:1-2, 163-182.
- Kondrashova, Natalia(1996) "The Russian Copula: A Unified Approach",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3, 171-198.
- Korn, David(1967) "Case Selection: Genitive or Accusative after Negation in Contemporary Russian?", *Modern Language Review* 62, 486-497.
- Kuroda, S.-Y.(1972) "The Categorical and Thetic Judgment", *Foundations of Language* 9, 153-185.
- Lee, In Young(1984) *A Semantic Study of Russian Impersonal Sentences with Verbal Predicates*. Ph.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Leinonen, Marja(1980) *Impersonal Sentences in Finnish and Russian: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 Lobanova, N. A.(1975) "Semantic Differentiation among Negative Sentence Variants",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19:2, 200-204.
- Lumsden, Michael(1988) *Existential Sentences: Their Structure and Meaning*. London: Routledge.
- Magner, Thomas F.(1955) "Negation and Case Selection in Russian", *Word*

- 11:4, 531-541.
- Matthews, W. K.(1952-53) "Functions of the West Finnic Partitive Case",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31, 58-73.
- Milsark, Gary Lee(1976)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Reproduced by the IULC.
- Morison, W. A.(1964) "Logical Stress and Grammatical Form in Russia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XLII:99, 292-297.
- Mustajoki, Arto and Hannes Heino(1991) *Case Selection for the Direct Object in Russian Negative Clauses. Part II: Report on a Statistical Analysis*.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 Neidle, Carol(1988) *The Role of Case in Russian Syntax*.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esetsky, David Michael(1982) *Paths and Categories*. Ph. Dissertaion. MIT.
- Restan, Per A.(1960) "The Objective Case in Negative Clauses in Russian: The Genitive or the Accusative?", *Scando-Slavica* VI, 92-111.
- Thomson, Alexander(1911/12) "Beiträge zur Kasuslehre", *Indogermanische Forschungen*. Starassburg. XXIX, 249-259.
- Timberlake, Alan(1986) "Hierarchies in the Genitive of Negation" in Richard D. Brecht and James S. Levines, eds. *Case in Slavic*. Columbus, Ohio: Slavica Publishers, Inc.
- Ueda, Masako(1993) "Set-Membership Interpretations and the Genitive of Negation", *Russian Linguistics* 17: 237-262.
- Uglitsky, Zinaida(1956) "Accusative and Genitive with Transitive Verbs Preceded by a Negative in Contemporary Russia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XXXIV:83, 377-387.
- Wexler, Paul(1976) "On the Non-Lexical Expression of Determinedness (with Special Reference to Russian and Finnish)", *Studia Linguistica* XXX:1, 34-67.
- Wierzbicka, Anna(1981) "Case Marking and Human Nature",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1, 43-80.

- Арутюнова, Н. Д. и Е. Н. Ширяев(1983) *Рус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тийный тип*.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 Афанасьев, А. Н.(1978) *Народные русские сказки*.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 Богуславский, И. М.(1985)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й семантике*. Москва: Наука.
- Буторин, А. И.(1966) "Об особых случаях употребления винительного прямого объект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Нор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 М.-Л. 125-136.
- Дерибас, Л. А.(1956) "Прямое дополнение при переходном глаголе с отрицанием",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XVII:2, 21-25.
- Дончева, Л.(1964) "Об употреблении родительного и винительного падежей после переходных глаголов с отрицанием",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6, 97-99.
- Золотова, Г. А.(1978) "О роли семантики в актуальном членении предложения", *Русский язык (Виноградовские чтения I-VIII)*, под ред. Н. Ю. Шведовой. М.: Наука.
- Ицкович, В. А.(1974) *Синтаксис и норма*. Москва.
- Костинский, Ю. М.(1969) "Подлежащее в родительном падеже?", *Русская речь* 6, 50-57.
- Коут, И.(1960) "Прямое дополнение в отриц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2, 27-32.
- Мустайоки, Арто(1985) *Падеж дополнения в русских отриц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1: Изыскания новых методов в изучении старой проблемы*. Slavic Helsingiensia 2. Helsinki.
- Падучева, Елена Викторовна(a)(1974) *О семантике синтаксиса*. Наука.
- _____ (b)(1992) "О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дходе к синтаксису и генетивном субъекте глагола *быть*", *Russian Linguistics* 16, 53-63.
- _____ (c)(1997) "Родительный субъекта в отрицатель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синтаксис или семантик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2, 101-116

- Попова, З. Д.(1973) "Винительный падеж при глаголах с отрицанием", *Русский язык за рубежом* 2, 67-69.
- Равич, Р. Д.(1971) "О выборе падежа прямого дополнения при переходных глаголах с отрицанием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Фонетика, фонология, грамматика: К семидесятилетию А. А. Реформатского*, под ред. Ф. Р. Филина. Москва: Наука.
- Сидоров, В. И. и И. С. Ильинская(1949) "К вопросу о выражении субъекта и объекта действ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XIII:4, 343-354.
- Словарь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 17 томах*. М.-Л.: Изд. АН СССР. 1950-1965.
- Томсон, Александр И.(1903) "Винительный падеж прямого дополнения в отриц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усский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XLIX. Варшава. 192-234.
- Шведова, Н. Ю. и другие(1982)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I: *Синтаксис*. Москва: Наука.
- Якобсон, Роман(1971)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наблюдения над славянским склонением", *Selected Writings*, The Hague: Mouton.

Abstract

The Genitive of Negation in Russian
— A Comparison with Accusative, Nominative
and Partitive Constructions

In Young Lee

In the traditional view the Russian genitive of negation is usually considered optional, because it may substitute accusative or nominative case. However, the choice of cases is determined by the speaker's consideration of discourse coherence and ultimately of his overall speech plan. I assume that the genitive of negation has a state-existential operator in assertion structure, while the accusative or the nominative of negation doesn't. In this respect, the genitive of negation can be grouped together with partitive, existential and impersonal constructions. They all share a total-situational viewpoint, while accusative or nominative construction manifests an agentive or a patientive viewpoint.

The state-existential operator assigns [+Partitive] to an NP within the assertion structure and this [+P] marking is usually signalled by genitive or partitive case. This approach argues agains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genitive of negation and partitive construction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To support the argument, the asymmetr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entences and the role of aspect are examined.